

## 비자금 5억원 조성 의혹 남양건설 내사 받아

광주지역 증권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최근 거액의 회사를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이 금융 당국에 적발돼 검찰의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KFIU)은 지난해 8월 남양건설 계좌에서 거액의 통치금이 인출됐지만, 용도가 불분명한 것을 발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올해 초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광주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남양건설 마형렬 회장과 경리 담당자 등을 소환해 최근까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조사결과 남양건설은 지난 2005년 8월 회계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해 서울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천만원짜리 채권 50장을 구입한 뒤, 지난 4월께 다시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남양건설측이 이 채권을 다른 곳에 사용한 흔적이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양건설 경리 담당자는 검찰에서 "회사 돈 5억 원으로 채권을 구입해 보관한 것은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융정보분석원(金融情報分析院)=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방지 및 외화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된 재정경제부 소속기관.

## 전형준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영장

5·31 선거 광주·전남 단체장 중 처음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단체장에 대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형철)는 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수건을 돌리고 당원 모집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전형준(49)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5월 '기아차 화순군 향우회' 주최로 화순 제일중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석해 수건 800장(시가 240만원 상당)을 참석자들에게 돌린 혐의다.

전 군수는 또 선거를 앞두고 당원 2천291명을 모집한 뒤 당비 2천500여만원을 대납했으며, 선거 운동원들에게 승용차 2대와 전화 선거운동 비용 78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남 '간호사 구하기' 비상

임금·근무환경 열악 '수도권' 러시

중·소 병원 인력난...진료 차질 우려

전남의 한 종합병원 간호부장인 이모(여·49)씨는 최근 자신의 간호대학 후배 명단을 작성한 뒤 '스카우트' 작업을 벌이고 있다. 300 병상에 가까운 중형급 병원이지만, 간호사가 9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의 일부 병원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교육지력'으로 병상 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

소형 병원들은 극심한 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병원들 대대적 모집 나서=광주의 한 구직·구인 사이트에는 54개 병원의 간호사 구인광고가 실려있고 '잡코리아'에도 상시 채용 광고가 줄을 섰다. 전남대 병원 등 광주지역 15개 종합병원 중

10개 병원이 최근 대대적으로 간호사를 모집했다.

전대 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70명의 간호사를 신규 채용했지만, 지난 6월에 20여명을 추가로 뽑았다. 1천 병상에 간호사만 791명을 확보하고 있어 인력이 넉넉해 보이지만, 3교대 근무에 주 5일 근무, 연·월차 등 휴가까지 따지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300 병상 규모의 광주지역 중형 병원이나 전남지역 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역 근무를 꺼리고 있는 데다, 미국 진출 허용 후 공백이 생긴 서울 및 수도권 근

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부족해 병상 수를 줄이는 병원도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의 중형급 병원들은 간호사 연봉을 올상반기 이후 10~20% 인상했다. 무안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강대 간호학과와 자매결연을 맺고 인력 확보에 나섰다.

무안병원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지역에 노인 병원 등 요양기관이 증가하면서 간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향후 간호사 비율에 따라 병원 입원료를 차등 가산하는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정이면 인력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역 간호사들은 수도권보다 30% 이상 낮은 연봉(1천만~1천400만원)과 잦은 야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수도권·미국 행을 결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S병원 간호사 김모(여·29)씨는 "5년 차인데 월급이 90만원 수준"이라며 "2년 차까지는 한 달에 10일 정도 야간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010년까지 1만여 명의 국내 간호사들이 미국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기독교 간호학교 등에서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수도권 간호사들의 미국 진출이 두드러지면 그 공백을 찾아 간호사들의 '수도권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 가산제도'에 따르면 6등급 병원의 간호사 1명당 병상 수는 4.5 이상이다. 광주시의 간호사 수는 2005년 말 현재 3천784명으로, 간호사 1명당 병상 수는 ▲2002년 3.79 ▲2003년 3.59 ▲2004년 3.78 ▲2005년 3.5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 5일 근무와 교대 근무, 휴가 등을 감안하면 간호사 부족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메타세쿼이아 그늘아래 피서

광주·전남지역 낮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그늘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담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카페 여주인 살해범 검거

30대 2명, 춘천에서도 여성 2명 살해 암매장

광주 카페 여주인 살인 사건(본부 8월 5일 3면)의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범인들은 다른 여성 2명도 살해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은 8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9·전주시 송천동·

무직)씨와 조모(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L카페에서 주인 김모(여·52)씨의 손발을 묶은 뒤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

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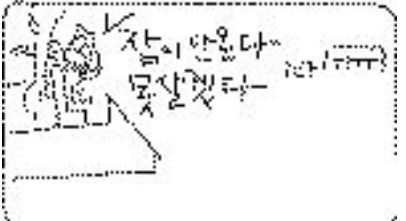
이들은 또 지난해 21일 오후 4시50분께 춘천시 인근 국도에서 광모(여·46)·김모(여·43)씨 등 2명을 납치해 현금 390만원을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들은 광씨 등이 탄 소년토 승합차를 자신들의 It 트럭으로 가로막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에도 전북 임실군에서 박모(여·29)씨를 같은 방법으로 납치해 현금 360만원을 인출했으나 김씨가 소출한 틈을 타고 달아난 박씨가 이들의 차 번호를 기억,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전북대 앞에서 발생한 여대생 실종사건도 이들의 소행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범인들은 청송보호소에 함께 복역한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연예계 동림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부대 중 353부대 353부대  
문의 (062)366-4220

전남도의원 음주운전 입건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7일 밤 10시20분께 북부 운양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전남도의회 박모(48)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쌍둥이 자매 69년만에 감격의 상봉

○69년 전 헤어져 중국과 목포에서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살고 있던 쌍둥이 자매가 경찰의 도움으로 상봉.

○목포경찰서 역전지구대는 8일 중국 지린성(吉林省)에 사는 조영자(77)씨가 아들을 시켜 언니인 조쌍례(77·목포시 산정동)씨를 찾고 싶다고 밝혀오자, 호적등본 등을 조회한 끝에 쌍례씨를 발견, 두 자매의 만남을 주선.

○쌍례씨는 12살 때 아버지가 중국으로 이주했지만 고모집에 남기를 희망, 가족을 따라 가지 않았다가 연력이 끊기는 바람에 지금껏 가족들의 생사를 몰랐다고.

복록=이승배기자 lsb@kwangju.co.kr

**침어진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무결핵 공법 적용 분야

- 국내 최대 2007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75차, 76차, 77차, 78차, 79차, 80차, 81차, 82차, 83차, 84차, 85차, 86차, 87차, 88차, 89차, 90차, 91차, 92차, 93차, 94차, 95차, 96차, 97차, 98차, 99차, 100차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물리적인방으로 [www.hanboGAGU.com](http://www.hanboGAGU.com)

사무용의자 전문상업판매

**토치 광주총판**

사무용의자 전문상업판매

사무용의자 전문상업판매